

사도행전과 바오로 서간을 통해서 본
사도시대 초대교회의 삶과 그 영성

4월 9일 강의 계획서

오순절 성령강림과 교회의 탄생

▶ 성령님과 관련된 논의들

- (3) 섬세하시고 수줍어하시는 성령님
- (4) “성령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충만하십시오”
 - ① 양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인가?
 - ② “성령 충만”이란 명사형은 없다 ⇒ “성령으로 충만되어졌다”
- (5) 성령님의 은사, 특별히 방언(심령기도)의 은사에 대한 오해

예루살렘 교회가 보이는 이상적인 공동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었다. ...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사도 2,42-47)

● 한마음으로 일치된 공동체

- (1) ‘한마음’과 ‘서로 서로’의 공동체
 - ‘한마음’(호모튀마톤 ὁμοθυμαδόν)
 - ‘서로’(알렐론 ἀλλήλων)
- (2) 기러기 공동체

● 사도행전 2장 42절 분석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우리말 성경)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친교, 빵을 떼어 나누는 일, 그리고 기도들에 전념하였다.”(강사 직역)

(0) ‘전념하다’의 의미

프로스카르테레오(προσκαρτερέω)

(1)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함

- 디다케(διδάχη)
- 신자재교육의 중요성
- 오늘날 우리는 신자재교육에 전념하고 있는가?

(2) ‘그 친교’(κοινωνία)에 전념함

- 그 친교(κοινωνία)란?

“그들은 그 친교에 전념하였다. ...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κοινα,) 소유하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각자 필요한 만큼 나누어주었다”(사도 2,44).

- 초대교회의 재산 공유는 공산주의 식인가? 또는 사랑에 근거한 공산주의 식인가?
-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공유재산을 모아서
- 공유재산을 배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 초대교회의 재산공유는 몇 년이나 가능했는가?
- 영적 성찰: 우리의 나눔에 대한 성찰

(3) ‘그 빵을 떼어 나누는 일’(κλασίς)에 전념함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그 친교, 그 빵을 떼어냄, 그리고 그 기도들에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었다”(사도 2,42)

“그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사도 2,46-47)

- ① 그 빵을 떼어 나눈다는 것 = 성찬성사(미사)를 가리킴
- ② 공동식사(=아가페 *ἀγάπη*)와 함께 이루어진 성체성사(미사)
분열의 자리가 되어버린 공동식사
- ③ 성도들이 매일 미사를 드리는 근거는 어디에
- ④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미사를 봉헌했다
- ⑤ 애초의 주일미사는 토요일 저녁에
● 미사를 저녁에 봉헌했던 이유
- ⑥ 유대교 종교모임은 예루살렘 성전과 회당에서
- ⑦ 그리스도교 종교모임은 가정교회에서

(4) ‘기도들’(기도생활)에 전념함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그 친교, 그 빵을 떼어냄, 그리고 그 기도들에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었다”(사도 2,42 직역)

- ① 유대인으로서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던 기도들
카디쉬¹⁾
아미다(=18 축복기도)²⁾

1) 그분(하느님)이 당신 뜻에 따라 창조한 세상에서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높이 들려지며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여러분의 생 안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들 안에, 이스라엘의 온 집의 생 안에,
빨리 그리고 곧 그분이 그분의 나라를 갖고 오게 하소서.
이에 대해서 아멘! 이라 말하라.

이스라엘의 모든 집안의 청원들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가 들려지기를, 여러분의 청원이 응답받기를.
하늘은 위대한 평화, 도움, 구원을 갖고 오소서.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집안의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평화와 생명을 갖고 오소서.
이에 대해서 아멘! 이라 말하라.

2) 1. 주님,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전능하시고 무서우신 하느님, 땅을 지으신 지고하신 하느님, 우리의 방패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의 방패이신 하느님, 매세대마다 우리의 의지할 분이신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아브라함의 방패이신 주님,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2. 당신은 전능하셔서 교만한 자들을 겸손케 하시는 이시고, 강하시고 포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히 사시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며,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이슬을 내리시며, 산자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단숨에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종말에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주님, 당신을 찬미합니다.
3. 당신은 거룩하시고 당신의 이름은 경외로우시며, 당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느

② 주님의 제자로서 새롭게 드리게 된 기도들

주님의 기도

신앙고백문들

찬가들

③ 공동체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드려진 청원기도

④ 소-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근거

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이뤄져야 한다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함

님이신 주님, 당신을 찬미합니다.

4.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주시고, 당신의 율법으로부터 오는 이해와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지식을 주시는 주님, 당신을 찬미합니다.

5. 주여, 우리를 당신께로 돌이키소서. 우리가 회개하겠나이다. 예전과 같이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소서. 회개를 기뻐하시는 당신을 찬미합니다.

6. 우리 아버지, 우리가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악행들을 지워 버리시고 당신의 시야에서 제거하소서. 당신의 자비가 풍성하시니까요. 용서를 풍성히 베푸시는 주님, 당신을 찬미합니다.

7.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 호소하시며, 당신의 이름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주님, 당신을 찬미합니다.

8. 우리 하느님이신 주여, 우리의 심장의 아픔을 치유하시며, 슬픔과 탄식을 우리로부터 제거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소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당신을 찬미합니다.

9. 우리 하느님이신 주여, 우리를 위해 금년을 축복하시고, 금년의 모든 생산을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의 최후 구속의 해를 빨리 가져오소서. 땅에 이슬과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의 사랑의 보고로부터 세상을 만족케 하시며, 우리 손의 일을 축복하소서. 해마다 축복하시는 주님, 당신을 찬미합니다.

10. 우리의 해방을 큰 나팔을 불어 선포하시고, 깃발을 들어 우리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소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추방당한 자들을 모으시는 주님, 당신을 찬미합니다.

11. 우리의 판관들을 예전과 같이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지혜자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 주소서. 오직 당신만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심판을 사랑하시는 주님, 당신을 찬미합니다.

12. 그리고 배교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교만한 나라는 빨리 우리의 생애에 뿌리 뽑히게 하소서. 그리고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은 빨리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그들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게 하지 마소서. 교만한 자들을 겸손케 하시는 주님, 당신을 찬미합니다.

13. 당신의 자비가 의로운 개종자들에게 풍성히 내리게 하시고, 당신의 기쁜 뜻을 행하는 자들과 더 붙여 우리에게 풍성한 상을 주소서. 의인들의 신뢰처이신 주님, 당신을 찬미합니다.

14. 우리 하느님이신 주여, 당신의 풍성한 자비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당신의 성전 예루살렘에, 영광의 거처인 시온에, 당신의 의로운 메시아 다윗가의 왕권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다윗의 하느님이신 주님, 당신을 찬미합니다.

15. 우리 하느님이신 주여, 우리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로우소서. 당신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니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16. 우리 하느님이신 주여, 시온에 기꺼이 거처하소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종들로 하여금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가 경외심으로 예배하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17. 우리 하느님이신 주님,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을 찬양하나이다.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보다 앞선 우리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선하심과 은총과 자비를 인하여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실족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 오 주여, 당신의 은총이 우리를 구출합니다. 오로지 선하신 이인 주여, 당신을 축복합니다.

18.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당신의 성전, 당신의 기업에 당신의 평화를 가져오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함께 축복하소서. 평화를 이루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사도 2,47)

- (1) '날마다'
- (2) '보태어 주셨다'
- (3) '온 백성'
- (4)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경우

베드로의 병자 치유와 복음 선포

1. 베드로가 불구자를 치유한 사건(사도 3,1-10)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세 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모태
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 하나가 들려왔다.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에
게 자선을 청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곁에 들어다 놓았던 것이다.(사도 3,1-2)

- (1) '오후 세 시 기도 시간' 이란 표현
- (2) "성전으로 올라가는데"가 갖는 의미
- (3)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인 사람의 병명
- (4) "자선을 청할 수 있도록"
- (5) "아름다운 문"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나서, "우리를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사도 3,4)

- (1) 치유 기적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아야
- (2) 힘과 평화를 수령하기 위해서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아야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
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
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사도
3,6-7)

-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 (2) 교회는 무엇을 갖고서 기적을 행하는가?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가 즉시 발과 발목이 튼튼해져서 벌떡 일어나 걸었다.(사도 3,7-8)

- (1) 불구자의 나이는 40살 이상
 - “그 치유의 표징이 일어난 이는 마흔 살이 넘은 사람이었다.”
 - (사도 4,22)
- (2) 의사로서 루카의 직업적 관심

앉은뱅이였던 그 사람은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걸기도 하고 쾅쾅쾅쾅 뛰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였다.(사도 3,8)

- (1) 처음으로 내부성전 안에 들어가게 된 이 사람
- (2) 그가 치유된 다음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느님에 대한 찬미였다
- (3) 우리 안에 감사함을 없애버리는 요인들

2. 치유기적에 근거한 베드로의 복음 선포(사도 3,11-26)

온 백성은 그가 걸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기도 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자선을 청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경탄하고 경악하였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데, 온 백성이 크게 경탄하며 ‘솔로몬 주랑’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 달려갔다.

- (1) 솔로몬 주랑

베드로는 백성을 보고 말하였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왜 이 일을 이상히 여깁니까? 또 우리의 힘이나 신심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들거나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유심히 바라보니까? ...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또 아는 이 사람을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그분에게서 오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해 주었습니다.”(사도 3,8-16)

(1) 겸손한 베드로

(2)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는 베드로